



방탄소년단이 강원 삼척의 명방해변에서 촬영한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사진제공 | 빅히트뮤직

삼척 명방해변·주문진 향호해변 BTS 뮤비 촬영지 성지순례 갈까

‘대리만족!’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원한 바다로 떠나고 싶은 갈망에 시달린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만큼 잠시 눈요기라도 해보자. 언젠가 떠날 그 날을 기약하며, 케이팝 스타들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현장은 여행 버킷리스트에 담아도 될 정도로 최적의 ‘대리만족’을 안겨준다.

전 세계 팬들에게 ‘글로벌 가이드’로 통하는 방탄소년단의 발길이 머문 곳은 모두 명소를 꼽는다. 특히 신곡 ‘퍼미션 투 댄스’의 콘셉트 포토와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는 팬들에게 이미 ‘성지’가 됐다. 멤버들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선베드에 앉아 선탄을 즐긴 곳, 강원도 삼척의 명방해변이다.

최근 관심을 끌자 삼척시는 아예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비치발리볼 세트를 이달 초 복원해 공개했다. 형형색색의 파라솔과 선베드, 비치발리볼 넷트와 심판의자 등을 재현하고 포토존도 만들어놓았다. 삼척시는 조만간 방탄소년단의 대형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스탬프 투어 코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군무 장면을 촬영한 인천 영종도 을왕산 일대도 화제의 장소다. 멤버들이 모래언덕에서 수어를 이용한 춤을 춘 곳이다. 유아인, 고경표 등이 출연하는 넷플릭스 영화 ‘서울대작전’을 촬영 중이기도 하다.

해의 팬들이 가장 보고 싶은 방탄소년단 여행지 1위(2019년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향호해변 버스정류장이다. 2017년 ‘유 네버 워크 얼론’ 앨범 재킷 촬영 이후 팬들의 ‘성지 행렬’이 이어지자 강릉시도 이듬해 관련 세트를 복원해 선보이고 있다.

한편 10일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미국 빌보드 최신 싱글 차트(14일자) ‘핫 100’에서 4위를 기록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채널A ‘레전드 음악교실-랄라랜드’ 안방마님 3총사 김정은·이유리·고은아



‘가까이 하기에 너무 멀었던’ 노래 가창에 도전하는 연기자 김정은·이유리·고은아. (왼쪽부터) 10일 첫 방송한 채널A ‘레전드 음악교실-랄라랜드’에서 가요계 ‘레전드’로부터 실력을 전수받는다. 사진제공 | 채널A

“방탄소년단 섭외? 전화번호만 알아와”

- 김정은

“우리에게 노래란? 갖지 못했으나 꼭 갖고 싶은 것!” 배우 김정은, 이유리, 고은아가 밝힌 노래의 의미다. 짧지 않은 시간 연기를 해온 이들에게 노래는 늘 멀고도 가까운 존재 같은 것이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소한 일상부터 민낯까지 과감하게 공개해왔지만, 노래만큼은 “항상 방문을 닫고 몰래” 불러야 했다. “어쩐지 부끄럽고 어색해서”였다.

그랬던 이들이 방 밖을 나와 당당히 마이크 앞에 섰다. 10일 첫 방송한 채널A 예능프로그램 ‘레전드 음악교실-랄라랜드’(랄라랜드)를 통해서다. 프로그램은 이들이 이승철 등 가요계의 ‘레전드’로 꼽히는 가수들로부터 직접 대표곡 가창을 전수받는 과정을 그린다. 방송인 신동엽, 조세호, 황광희도 의기투합해 노래 여정을 시작한다.

김정은, 이유리, 고은아는 이날 첫 방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정만큼은 누구 하나 뒤지지 않는다”면서 “노래를 향한 우리의 진심에 시청자도 깜짝 놀랄 것”이라고 자부했다.

●“노래 연습 그만!” 견제 팽팽

출연자들은 노래 교습을 받는 사이사이 각종 미션 경쟁도 펼친다. 서로에 대한 견제가 그만큼 팽팽했다. 김정은은 막내 고은아를 향해 “연습 금지다. (고)은아는 하얀 눈발이라 선생님들이 붓을 터치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인재이다”며 질투 어린 칭찬을 했다.

“(이)유리도 목소리가 정말 예뻐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동생들에게 연습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의 노래가 완성되는 그날, 프로그램에서 ‘하산’해야 된다고요. 하하하! 요즘에는 거의 매일 노래 연습만 하고 싶

김정은 “노래 완성되면 하산, 연습 좀 그만” 이유리 “레전드가 가습, 연예인되길 잘했죠” 고은아 “친동생 미르가 노래 못한다고 놀려

“시청률 5% 넘기면 버스킹…음원 발매가 꿈”

아요. 각종 삼을 먹어가면서 단련 중이에요. 제 무기는 아무래도 연료이죠. 그것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니까요.”

데뷔 초, 김정은을 닮은 외모로 ‘리틀 김정은’이라 불렀다는 이유리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기회가 왔을까 싶다”면서 벽찬 감정을 드러냈다. “노래를 배우는 재미만큼 팀워크를 쌓아가는 즐거움도 크다”고 한다.

“제가 (김)정은 언니 연기를 보면서 배우를 꿈꿨어요. 한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해요. 사실 노래를 정말 못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늘 노래를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못하는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참여하게 됐죠.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선망했던 가수들의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연예인 하길 참 잘했다 싶어요.”

고은아는 “그를 엠블랙 출신인 동생 미르(방철용)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고 자랑했다. “타고난 올림통”으로 고음을 내질러 ‘고음아’라는 새로운 별명도 얻었다.

“제 캐스팅 소식을 듣자마자 미르의 첫 마디가 ‘민폐 끼칠 것 같은데’였어요. 잘 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면 서로 ‘언제 또 그런 유명한 가수 선배들에게 직접 강습을 받을 수 있겠어’라면서 열심히 해보라고 하더군요

요. 아직은 방에서 혼자 연습하는 제 노래를 들으면서 ‘누나, 노래 배우고 온 거 맞아?’라고 되묻기는 하지만요. 하하!”

●“BTS도 초대하고 싶어요”

이들은 ‘랄라랜드’로 “언젠가 음원도 발매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펼치고 있다. “이런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다고?”라며 매회 놀랄 만큼 ‘레전드’들을 만나 얻은 자신감이 토대다. 김정은은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방송가에서는 하나의 소재가 뜨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오디션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거예요. 요즘 오디션 소재가 많다 보니 유명한 가수들이 심사위원으로 많이 출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의 노래를 들을 기회는 많지 않죠. ‘랄라랜드’에서는 가요계에 한 획을 그은 가수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청률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채널A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강철부대’의 인기를 넘보고 있다. 이들은 ‘강철부대’의 최고 시청률인 5%를 넘기면 “당장 나가서 버스킹 공연을 펼치겠다”며 웃었다.

“본격 사심 방송”을 이루기 위해 ‘레전드’ 섭외에까지 손을 뻗을 태세다. 이유리와 고은아는 각각 가수 서태지와 이선희를 “꼭 모시고 싶은 가수”로 꼽았다.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는 김정은의 포부가 화려했다.

“나훈아 선생님께서 ‘티스 형’ 한 번 외쳐주세요. 나아가서 방탄소년단 출연까지 꿈꿨습니다. 제작진이 전화번호만 알아오면 제가 직접 섭외 전화할게요. ‘레전드’들을 만날 수 있다면 뭘든 못할까요? 하하하!”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증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

•식용유형 : 과채음료 •원산지 : 양배추(충청남도), 사과(충청남도), 브로콜리(충청남도), 산사나무열매(충청남도), 매실(충청남도)